



패션은 물론, 자외선 차단·체온 보호에 체형 보정까지...

래쉬가드 하나면 ‘바캉스의 여왕’

올 여름 ‘래쉬가드’의 열풍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가릴 건 가려 체형을 보정시켜주면서 몸매를 드러내 건강한 색시미를 살려주고 기능성과 활동성까지 갖춘 래쉬가드는 비키니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 여름에도 휴가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 체비 중이다.

젊은층 휴가지 필수아이템 인기
쏿팬츠 스타일링...롱다리 효과

센터폴 ‘래쉬가드 컬렉션’ 선배
UPF+ 소재로 자외선 99% 차단

‘래쉬가드(Rash Guard)’는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터를 혼합하여 만든 수상 운동 셔츠의 한 종류로 서핑,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때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과 체온 보호, 방수·흡수·속건 기능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패션 감각까지 높여 젊은층에게 휴가지 패션 아이템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올 여름에도 아웃도어 업계와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래쉬가드를 앞 다퉈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스타를 앞세운 마케팅을 전개해 래쉬가드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래쉬가드 하나면 “나도 공승연”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에 부합하는 래쉬가드를 선택해 스타일링한다면 휴가지에서 빛나는 래쉬가드룩을 완성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CENTER POLE)’은 올 여름 워터

스포츠를 즐기는 스타일리시한 남녀를 위한 ‘래쉬가드 컬렉션’을 출시했다. 풀집업, 컬러 블록, 로고 포인트 상의와 비치 가드 등 하의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인다. 남자용 래쉬가드는 상의 8종, 하의 4종, 여자용 래쉬가드는 상의 7종, 하의 3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용 래쉬가드 중 ‘민트 컬러 포인트 래쉬가드’, ‘카뮤플라주 패턴 래쉬가드’, ‘센터폴 로고 포인트 래쉬가드’는 공승연이 화보 속에서 착용해 일명 ‘공승연 래쉬가드’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상큼하면서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화사한 민트 컬러로 포인트를 준 래쉬가드를 추천한다. 평소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카뮤플라주 패턴의 래쉬가드로 세련미를 더하고, ‘겔크러쉬’ 성향의 여성이라면 블랙 컬러의 포인트 래쉬가드로 강렬한 색시미를 어필하는 것이 좋다. 화보 속 공승연처럼 신축성있는 비치 쏿팬츠, 데님 쏿팬츠 등과 스타일링하면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다리가 더욱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센터폴의 래쉬가드는 우수한 신축성과 복원력이 강한 트리코트 소재를 적용했다. UPF+ 소재 사용으로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해 해양 스포츠, 레저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성을 갖췄다. 감각적인 컬러 배색과 로고 포인트 등 액

티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한 감각까지 살린 것이 특징이다.

허리라인 절개, 컬러 배색을 적용해 바디라인을 한층 슬림하게 하며 우수한 탄성감으로 몸을 착 감싸줘 몸매를 탄탄하게 잡아준다. 고기능성의 원단이 물과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 물 속에서나 물 밖에서나 자유롭게 활동성과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래쉬가드 끝단 내부에 고정 스트링을 적용해 비치팬츠 스트링과 연결하면 액티브한 수중 활동에서도 상의가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래쉬가드 똑똑하게 구입하는 법

래쉬가드는 여름 야외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상을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므로 기능성을 꼼꼼히 따져 구매할 필요가 있다.

래쉬가드를 고를 때에는 햇빛에 의한 화상, 발진, 각종 찰과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였는지, 자외선 차단 효과는 우수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래쉬가드는 타이트하게 착용하는 제품이라 신축성과 복원력이 좋은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쾌적한 활동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한다. 흡수·속건 기능, 변색 유무 등도 따져봐야 하므로 사용 후기 등을 참고해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자외선 차단, 체온보호, 방수·흡수·속건 등 기능성과 활동성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래쉬가드가 여름철 휴가지 패션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의 래쉬가드 컬렉션을 입고 휴가지 래쉬가드룩을 연출한 센터폴 전속모델 공승연. 사진제공 | 센터폴

월드IT쇼에서 5G를 경험하라

SKT, 스포츠 접목 VR 체험관 운영
KT 부스에선 5G 올림픽 체험 기회
코엑스에서 개최...20일 일반인 개방

“스포츠를 테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체험한다.”

국내 최대 ICT전시회인 ‘월드IT쇼 2016’이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는 ICT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 ‘Connect Everything’을 주제로 가상현실(VR)과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연결(O2O)서비스, 인공지능(AI)기술 등이 대거 전시된다. 특히 이동통신기업들은 5G를 알리기 위해 스포츠를 테마로 한 각종 기술 전시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전시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비즈니스 데이’로 진행되며 20일은 ‘퍼블릭 데이’로 지정해 일반 관람도 가능하다.

●SKT, VR기기로 홈런배틀

SK텔레콤은 이번 전시회에서 ‘플랫폼을 즐겨라(Play the Platform)’를 주제로 실생활에 적용된 플랫폼과 5G 서

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5G 네트워크를 멀티 애플과 VR, 타임슬라이스 등 유망 기술과 접목해 야구와 농구, 펜싱, 체조 등 다양한 스포츠 상황 예시를 통해 선보인다. SK텔레콤 전시관 방문객들은 VR기기를 쓰고 IoT 센서가 장착된 야구 배트로 즐기는 홈런 배틀, 원하는 각도를 골라서 볼 수 있는 펜싱, 초광대역통신(UWB) 기반 위치 측정 기술이 적용된 고공빌딩 탈출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5G 네트워크가 실생활에 제공할 수 있는 빠른 속도와 방대한 데이터 전송량 등의 강점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밖에도 전시관 일부를 도시의 거리와 상점으로 꾸며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생활가치·미디어·IoT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이다.

●KT, 5G 올림픽 미리 체험

KT는 ‘완벽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리 만나는 5G 올림픽’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민다.



17~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16’에서는 ICT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을 주제로 가상현실(VR)과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연결(O2O)서비스, 인공지능(AI)기술 등이 대거 전시된다. SKT(왼쪽)과 KT의 전시장 조감도.



사진제공 | SKT·KT

‘완벽한 네트워크’와 ‘미리 만나는 5G 올림픽’, ‘스마트 IoT’ 총 3개존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최신 네트워크와 VR, IoT 기술 등을 선보인다. 그 중 5G올림픽존에선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아이템들로 구성했다. 지난 2월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VR 기술을 접목해 큰 인기를 끌었던 스키점프와 함께 봅슬레이, 무지크 비디오, 올레TV 모바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 입구에 구성된 타임슬라이스 코너에선 관람객이 뮤직비디오와 함께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대형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에서 체험

할 수 있다. 타임슬라이스는 피사체의 순간 동작을 다양한 공간과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특수촬영 기법. 이를 스포츠에 접목할 경우 야구나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역동적인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으며, 쇼트트랙과 같이 속도가 중요한 종목에서는 판정시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 IoT존에선 올레tv에서 손리의 동영상상을 보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가 IoT 헬스밴드’와 올레tv와 연동해 도로의 상태나 경사도에 따라 pedal의 강도가 실시간으로 조절돼 실제 주행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주는 ‘기가 IoT 헬스바이크’도 체험할 수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카 디자이너 이상엽씨, 현대차 품으로

디자인센터 스타일링 상무로 영입
제네시스 디자인 경쟁력 강화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은 16일 벤츄리 외장 및 선행디자인 총괄인 이상엽(46·사진)씨를 현대디자인센터 스타일링 담당 상무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현대차그룹에 합류하게 될 이상엽 상무는 현대디자인센터장 루크 동커볼케 전무와 함께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게 된다. 동시에 두 브랜드에서 개발하는 모든 차의 내·외장 디자인, 컬러, 소재 등 전 영역에 걸쳐 디자인 혁신을 주도한다.

이상엽 상무는 치열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인 디자이너로서는 가장 인정받고 널리 알려진 스타 디자이너로 통한다. 1999년 선임디자이너로 GM에 입사한 이상엽 상무는 미국 스포츠카 대표 모델인 카마로, 콜벳 스팅레이 등 콘셉트카의 디자인을 주도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범블비’로 잘 알려진 카마로는 초기 콘셉트부터 2008년 양산에 이르기까지 외장디자이너를 직접 디자인하며 그의 진가를 전 세계에 알렸다.2012년 말부터는 고급차 브랜드 벤츄리의 외장 및 선행 디자인 총괄을 맡아 최근까지 근무했다. 업계에서는 그가 벤츄리 디자인을 맡는 동안 브랜드 정체성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트렌드를 앞서나가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엽 상무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활동해 오면서도 항상 현대·기아자동차



차의 디자인 혁신과 경이로운 성장은 신선한 자극이자 한국인으로의 자부심이었다. 이제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포함해 세계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을 주도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럭셔리카와 스포츠카 디자이너 중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발휘해온 이상엽 상무 영입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총괄 사장을 시작으로 2014년 고성능차 개발을 위해 BMW 출신의 비어만 부사장을, 지난해 연말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전무와 람보르기니 브랜드 총괄 임원 출신의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전무를 영입하는 등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제품과 브랜드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동아전람 박람회 19~22일 킨텍스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41회 MBC건축박람회’, ‘제11회 동아 홈&리빙페어’, ‘2016 동아 기프트쇼’, ‘제6회 동아 차·공예 박람회’, ‘제7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박람회’, ‘2016 동아 가구 엑스포’, ‘2016 동아 조명 박람회’, ‘2016 서울 디지털 프린팅·사인 엑스포’, ‘2016 동아 공

공시설 및 조경박람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 EX)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내·외장재, 가정용품, 주방용품, 가구, 선물용품, 판촉용품, 차용품, 스포츠 및 레저관련용품, 캠핑용품, 인테리어조명, LED조명, 디지털프린터, 사인·광고제작, 실내·외 조명, 공

공시설, 원예자재 및 용품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참가업체에 신제품 홍보와 마케팅 장소를 제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관람문의 (02)780-0366. 원성열 기자